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홍춘욱**

02) 3787-4964 chunukhong@kiwoom.com

ECB 결과에 대한 재평가 부각 금융주 및 에너지섹터, 강세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D-5	D-20
KOSPI	1,971.41	+0.11	+0.81	+5.90
Ishares MSCI KOREA ETF(\$)	50.65	+2.18	+1.83	+10.11
KOSDAQ	69.17	+0.23	+2.28	+6.40
DOW	17,213.31	+1.28	+1.21	+9.92
NASDAQ	4,748.47	+1.85	+0.67	+11.29
S&P 500	2,022.19	+1.64	+1.11	+10.56
VIX Index	16.50	-8.59	-2.14	-41.36
Russell 2000	1,087.56	+2.22	+0.52	+14.03
Semiconductor	659.14	+1.94	+1.31	+17.88
상하이종합	2,810.31	+0.20	-2.22	+1.69
러시아	845.59	+1.36	+5.89	+25.96
인도	24,717.99	+0.38	+0.45	+7.70
브라질	49,638.68	+0.14	+1.13	+24.70
일본	16,938.87	+0.51	-0.45	+13.28
홍콩항셍	20,199.60	+1.08	+0.11	+10.26
홍콩 H	8,561.37	+1.68	+0.04	+14.07
대만	8,706.14	+0.31	+0.57	+6.18
태국	1,393.41	+1.04	+1.01	+8.80
베트남	577.26	+0.23	+0.63	+5.97
인도네시아	4,813.78	+0.43	-0.62	+0.79
영국	6,139.79	+1.71	-0.96	+7.57
독일	9,831.13	+3.51	+0.07	+9.63
프랑스	4,492.79	+3.27	+0.81	+12.46
스페인	9,090.60	+3.69	+3.17	+14.77
포르투갈	5,003.42	+2.49	+1.05	+10.34
그리스	566.20	+0.37	+2.42	+24.63
이탈리아	18,987.75	+4.80	+3.88	+14.97
폴란드	47,182.13	+1.06	+1.68	+7.60
호주	5,224.83	+0.27	+1.43	+8.48
아르헨티나	13,051.54	-0.92	-1.64	+15.74
칠레	18,815.72	+0.20	+0.10	+4.35
남아공	45,761.25	+0.47	-1.00	+6.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시장 동향 - 선진국 증시 동반 상승

전 주말 한국은 외국인의 1,476억원(거래소 기준)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 일본과 중국 증시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

유럽시장은 전일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상승. 특히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이 은행 수익을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며 금융주 강세(도이치뱅크 +7.01%, 바클레이즈 +3.81%, SC +4.30%, RBS +3.56%). 또한 국제유가 상승을 계기로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유럽증시의 상승 폭이 더욱 확대(독일 +3.51%, 영국 +1.71%, 프랑스 +3.27%, 이탈리아 +4.80%).

미국시장은 유럽증시 강세 및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금융주 위주로 상승했으나, 오후 접어들며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마감했음(다우 +1.28%, 나스닥 +1.85%, S&P +1.64%).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강세 두드러져

국제유가의 '바닥론'이 IEA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확대되자, 에너지관련 채권 부실 우려가 완화되며 금융주 강세.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강세 출발 예상

MSCI한국지수가 +2.18% 했음을 감안할 때 금일 증시는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985포인트를 전후한 매물 벽에서는 상승탄력이 둔화될 전망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중국 경제지표 부진

중국 1~2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전월 수준은 물론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Global 시장 동향

아시아시장 – 동반 강세

- 한국 +0.11%
- 일본 +0.51%
- 중국 +0.20%

전 주말 한국 증시는 ECB의 강력한 통화공급정책과 외국인인 1,476억원(거래소)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물량 출회 영향으로 0.11% 상승한 1,971.41p로 마감했다. 일본도 글로벌 주요 증시의 약세로 하락 출발했지만 국제유가 강세와 달러/엔 상승으로 주가지수는 0.51% 상승했다.

중국도 글로벌 주요증시 약세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국제유가상승을 계기로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특히 금융섹터와 원자재업체 강세가 두드러지며 상해종합은 0.20% 상승한 2,810.31p로 마감했다.

유럽시장 –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재해석

- 독일 +3.51%
- 영국 +1.71%
- 프랑스 +3.27%

유럽시장은 전일 ECB통화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부각되며 상승 출발했으며, 특히 6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으로 인한 은행권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 금융섹터가 크게 상승했다(도이치방크 +7.01%, 바클레이 +3.81%, SC +4.30%, RBS +3.56%).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유시장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바닥을 지나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한 영향으로, 에너지 기업들도 상승했다(로얄 더치 쉘 +2.38%, BP +1.65%). 이러한 금융 및 에너지기업의 강세로 유럽시장은 상승했다(독일 +3.51%, 영국 +1.71%, 프랑스 +3.27%, 이탈리아 +4.80%)

미국시장 –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

- 다우 +1.28%
- 나스닥 +1.85%
- S&P500 +1.64%

미국시장은 유럽증시와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 출발했다. 특히, 국제유가 ‘바닥론’ 확대로 원유업체 채권 부실화 우려감이 완화되자 금융섹터의 상승폭이 컸다(BOA +3.92%, 웰스파고 +3.22%, 씨티그룹 +3.92%).

오후 들어 주식시장은 상승이 제한됐는데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컸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주식시장을 이끈 반면, 필수 소비자, 유틸리티, 통신서비스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다우 +1.28%, 17,213.31p, 나스닥 +1.85%, 4,748.46p, S&P +1.64%, 2,022.19p).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금융섹터, 에너지섹터
강세

금융섹터 강세 두드러져

국제유가의 '바닥론'이 IEA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확대되자 에너지 채권 부실 우려감이 완화되며 금융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BOA +3.92%, 웰스파고 +3.22%, 씨티그룹 +3.92%, 골드만삭스+1.93%, 모건스탠리 +5.48%) 펀드운용사들도 동반 상승했다(블랙락 +4.51%, 프랭클린 +4.35%).

에너지업체도 상승이 컸는데 대형 원유업체보다는 중소형 셰일오일 업체들의 상승이 컸으며(엑손모빌 +0.01%, 셰브론 +0.68%, 코노코필립스 +3.82%, EOG리소스 +4.03%) 원유 서비스업체들도 상승했다(솔룸버거 +2.49%, 할리버튼 +4.67%, 베이커 휴즈 +5.19%).

그 외, 바이오섹터도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으며(바이오젠 +3.08%, 잠전 +2.51%), 대형 기술주도 상승했다(알파벳 +1.74%, 페이스북+1.95%, MS +1.96%, 아마존 +1.91%).

반면 최근 상승을 하던 철강업체인 AK스틸은 CS의 투자의견 하향조정으로 3.37% 하락했으며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는 0.73%, 구리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은 0.52% 하락했다.

주요 ETF 가격 등락

원유시추업체 ETF 상승
금융섹터 ETF 상승
바이오섹터 ETF 상승

- 원유시추업체 ETF인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는 +4.42%
- 소매업체 ETF인 SPDR S&P Retail ETF는 +1.48%
- 금융섹터 ETF인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는 +2.60%
- 기술섹터 ETF인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는 +1.54%
- SNS업체 ETF인 Global X Social Media Index ETF는 +2.52%
- 인터넷업체 ETF인 First Trust Dow Jones Internet Index Fund는 +2.11%
- 부동산섹터 ETF인 The 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2.32%
- 바이오섹터 ETF인 iShares Nasdaq Biotechnology ETF는 +2.69%
- 헬스케어 ETF인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는 +1.95%
- 하이일드 채권 ETF인 SPDR Barclays High Yield Bond ETF는 +1.18%

U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1.90	+2.23	+1.89	+13.71
소재	278.48	+1.77	+2.14	+13.99
산업재	468.56	+1.44	+0.48	+10.59
경기소비재	611.64	+1.57	+0.57	+12.53
필수소비재	535.75	+0.20	+0.63	+5.90
헬스케어	790.58	+1.94	+1.66	+7.86
금융	302.39	+2.66	+0.99	+14.16
IT	707.57	+1.75	+1.13	+11.05
통신	168.47	+0.33	+1.21	+6.94
유틸리티	243.03	+0.14	+2.13	+5.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야간선물
+1.70p, 245.30p
KOSPI 환산 1,985p

200일 이동평균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 축소예상

MSCI한국지수는 +2.18% 상승했으며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793계약 순매수로 1.70p 상승한 245.30p로 마감했다. 이를 KOSPI로 환산하면 1,985p정도로 지난 금요일(11일) 1,971.41p로 마감했기에 약 14p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8.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금요일(11일) 서울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한국 금통위 금리동결 이후 하락이 이어지며 목요일 12.7원에 이어 10.4원 하락한 1,193.10원으로 마감했다.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월요일(14일) 서울 환시는 약 6원 정도 하락한 1,187원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토요일에 부진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발표는 중국발 경기부양 기대감도 이러한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985포인트를 전후한 매물 벽에서는 상승탄력이 둔화될 전망이다.

상승 후 차익실현 물량
출회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소매판매, 산업생산 부진

중국 1~2월 소매판매는(y/y) 전월(11.1%)보다 부진한 10.2%로 발표됐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 중 가장 양호한 지표 중 하나였지만, 연초 금융시장 불안 영향을 받아 둔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1~2월 산업생산은(y/y) 전월(5.9%)보다 부진한 5.4%로 발표됐다. 2월 춘절 기간이 있어 1,2월 합산으로 발표되는데, 최근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 및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둔화됐다.

중국 1~2월 고정자산투자는(y/y) 전월(10.0%) 보다 개선된 10.2%로 발표됐다. 공급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활동 관련 지표 개선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2월 수입물가지수는(m/m) 전월(-1.0%)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0.3%로 발표됐으며 2월 수출물가지수도 전월(-0.8%)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0.4%로 발표됐다



상품 및 FX시장 동향

신흥국/상품환율, 달러대비 큰 폭 강세

달러지수 +0.11%
유로/달러 -0.23%
달러/엔 +0.55%

유로/달러가 ECB 리카넨 정책위원의 “인플레이 2% 도달까지 정책 지속” 발언으로 하락했으며 달러지수는 유로/달러 하락으로 상승했다. 다만 FOMC회의를 기다리며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달러/엔은 국제유가와 주식시장 강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상승했다.

신흥국/상품통화
달러대비 큰 폭 강세

신흥국/상품통화는 ECB의 강력한 통화공급 정책으로 인해 달러화에 강세를 보였다. 또한 국제유가가 IEA의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 후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대비 강세요인이었다(달러/남아공 랜드 -1.32%, 달러/노르웨이 크로네 -1.18%, 달러/러시아 루블 -2.11%, 달러/브라질 헤알 -1.09%, 달러/위안(CNH) -0.37%).

WTI (4월물)
+1.74%, 38.50달러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전월 OPEC 원유생산량 감소 및 비OPEC 원유생산량 감소 확대’ 및 ‘이란의 산유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 원유가격이 바닥을 지나고 있거나 이미 지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서 내용으로 상승했다. 오후 들어서 베이커휴즈의 원유채굴장비수가 6개 감소한 386개로 발표되며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며 마감했다.

금 (4월물)
-1.05%, 1,259.40달러

금은 SPDR골드트러스트 ETF의 금 보유량이 2014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와 달러지수 상승으로 하락했다.

구리 (CME 기준 5월물)
+0.95%, 2.2410달러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시장 강세로 상승했다. 또한 위안화의 안정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안정도 비철금속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LME 기준: 구리 +1.62%, 납 +1.93%, 니켈 +0.86%, 아연 +2.07%, 알루미늄 +0.10%).

밀 -0.26%
옥수수 +0.62%

옥수수는 수출량이 2015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으며, 대두는 중국 금융시장 안정으로 강세를 보였다. 다만 밀은 차익실현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채금리
2년물 +3.3bp
10년물 +4.8bp

국채금리는 국제유가 상승과 주식시장 강세 및 수입물가지수 감소폭 축소로(전월-1.0%, 결과 -0.3%) 상승했다.